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심태은¹, 이송이^{2*}

¹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²다르마칼리지

The Study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Types of Perception in regards to Human Rights for College Students

Tae Een Shim¹, Song Yi Lee^{2*}

¹Competency Development Center, Dongguk University

²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Q방법론을 통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인식 유형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속에서 인권으로 인해 실리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리적 현실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개인권리 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권에 대한 개인의 맥락에서의 인지적 교육에만 구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의 가능성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types of perception in regards to the human rights of college students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study methodology included a t-test and variance analysis for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 Q-factor analysis for the perception types of human rights.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human right sensitivity, it was found that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and juniors and seniors were higher than freshmen and sophomores.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students in the social and science department were the highest, and those who had volunteer experiences were more susceptible to human rights than those who did not. Students who registered for organ donation were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ose who received human rights education showed higher human rights susceptibility than those who did not. Four perception types of human rights were analyzed 'universal social moralists', those who have an idealistic mindset and make decisions based on moral standards, 'practical realists', those who have no intention of breaking out of the social norm and who do not want to take any risks for human rights, 'social system advocates', those wh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sic human rights concept, but don't think that they should break the rules of society for the sake of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contracts advocates', those who are willing to bend the rules of society for human rights, but not to the extent of ruining relationships.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viewpoint that human rights sensitivity can b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social experience as well as perception.

Keywords : College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Social experience, Perception, Q methodology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내용을 수정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Song Yi Lee(Dongguk Univ.)

Received July 20, 2018

Revised August 16,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따른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증가하는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인권에 대한 사회 내 인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갑질논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 폭언이나 폭행, 몰래카메라,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생하는 권리문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건장수준은 달라지며,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인권(人權)이라고 하는데, 인권에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인권감수성이라고 한다[1]. 인권감수성은 인권민감성, 인권의식 등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상황을 지각하는 능력과 함께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성숙한 인격체가 지향해야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특히 인권의식(human rights awareness)은 지식과 이해를 근거로 인권적인 것과 반인권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은 인권관련 상황을 접할 때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타인이 인권침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며, 그 상황에 대한 개선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다 정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1]는 도덕민감성 척도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상황지각은 상황에 대한 해석능력으로 그 상황을 얼마나 인권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능력이며, 결과지각은 남에게 미칠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는 지각 능력, 책임지각은 개인이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한 지각능력으로 인권관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각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들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한 후 어떠한 행동결정을 할지에 대한 연속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인권감수성 연구는 주로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시작되었는데 Kohlberg[4]는 도덕발달을 도덕적 옳음과 그릇에 대해 각기 상이하게 이해하는 단계를 통하여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벌과 복종의 초점에 맞춘 단계 1과, 도구적 목적과 교환에 초점을 맞춘 단계 2를 전 인습적 수준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인 기대와 관계 그리고 일체에 초점을 맞춘 단계 3과 사회체계의 보존에 초점을 맞춘 단계 4를 인습적 수준이라고 보았고, 사회계약에 초점을 맞춘 단계 5와 보편적이고 윤리적 원칙에 초점을 맞춘 단계 6을 후 인습적 수준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형성된 인권감수성의 인권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평등권, 불구속권,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사회권), 환경권, 자유권, 장애인(자유권), 노동권, 사생활보호권, 신체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총 10개의 예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5].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차이가 나타나며[6], 학습의 내용에 따라 인권 감수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권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여[7] 인권감수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Kim[8]은 연령 및 인권교육시간, Kim[9]은 성별과 연령, 국가인권위원회[10][11]의 연구에서는 성별, 군필여부, 정치성향, Park[6]의 연구에서는 윤리과목 수강경험, Park[12]은 학년별, 인권교육 경험 및 사회복지 관계인식에서 인권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요인은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개인이 경험한 활동의 내용일 수도 있다. 즉, 대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은 성별, 전공, 학년 등이 될 수 있고, 개인이 경험하는 활동으로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봉사, 헌혈, 장기기증 여부, 인권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토대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상의 특성과 경험에 맞게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이 인권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 유형에 따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삶 속에서 인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개인의 특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생이 인식하는 인권인식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인권인식의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대상은 D대학교 재학생 중 교양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첫째, 인권감수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3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322명의 설문지가 취합되었는데, 이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33.5%, 여학생이 66.5%이고, 1학년이 57.1%, 2학년이 26.7%, 3학년이 15.5%, 4학년이 0.6%이다. 종교는 기독교가 13.7%, 불교가 10.9%, 카톨릭이 8.4%, 무교가 67.1%였다. 전공은 불교대학 1.2%, 문과대학 18.6%, 이과대학 13.4%, 법과대학 12.1%, 사회과학대학 5.9%, 경영대학 12.7%, 바이시스템대학 14.6%, 공과대학 12.4%, 사범대학 7.8%, 예술대학 1.2%이다. 봉사경험은 76.4%, 헌혈경험은 45.5%, 장기기증서약은 13.0%, 인권교육 경험은 56.8% 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08	33.5
	Female	214	66.5
	Total	322	100.0
Year	Freshman	184	57.1
	Sophomore	86	26.7
	Junior	50	15.5

	Senior	2	0.6
	Total	322	100.0
	Religion	Christianity	44
Buddhism		35	10.9
Catholicism		27	8.4
Nothing		216	67.1
Total		322	100.0
Majors	Buddhism	4	1.2
	Liberal arts	60	18.6
	Natural science	43	13.4
	Law	39	12.1
	Social science	19	5.9
	Business	41	12.7
	Bio Medical	47	14.6
	Engineering	40	12.4
	Education	25	7.8
	Arts	4	1.2
	Total	322	100.0
	Volunteer Experiences	Yes	246
No		76	23.6
Total		322	100.0
Blood Donation	Yes	145	45.0
	No	177	55.0
	Total	322	100.0
organ Donation Decision	Yes	42	13.0
	No	280	87.0
	Total	322	100.0
Human Rights Education	Yes	183	56.8
	No	139	43.2
	Total	322	100.0

둘째, 대학생들의 인권인식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D대학의 교양수업을 듣고 있는 37명의 대학생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인권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와 문헌연구 및 인터뷰내용 등을 통해 총 66문항의 Q모집단을 만들었다. 수집된 Q모집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진술문이 모두 담고 있는지를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읽고 이를 정리하였다. Q모집단에서 Q표본을 구성하기 위하여 의미가 중복된 문항은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을 합쳐 검토와 수정과정을 통해 총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이 되는 20명의 학생들에게 Q표본 분포 워크시트를 나누어 주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워크시트 작성을 실시하였는데, P표본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 sample

No	Gender	year	Major
P1	Female	2	Liberal arts
P2	Male	3	Natural science
P3	Male	1	Natural science
P4	Male	3	Engineering
P5	Male	2	Natural science
P6	Male	3	Natural science
P7	Female	4	Social science
P8	Male	4	Social science
P9	Male	3	Liberal arts
P10	Male	3	Liberal arts
P11	Male	2	Engineering
P12	Male	2	Engineering
P13	Female	3	Liberal arts
P14	Female	4	Social science
P15	Male	3	Natural science
P16	Female	4	Education
P17	Male	3	Buddhism
P18	Male	2	Social science
P19	Female	3	Business
P20	Male	3	Law

2.2 측정도구 및 신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조사도구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인권감수성은 각각 하위영역이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분류되어 있다. 점수 부여 방식은 각 에피소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항 중에서 인권문항에 대한 반응이 비인권문항에 대한 반응보다 큰 경우만 선택하여 평정한 점수를 준다. 만약 인권문항에 대한 반응보다 비인권 문항에 대한 반응이 높을 경우에는 0점을 주는 방식이다. 인권감수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Table 3과 같으며 상황지각은 .678, 결과지각은 .681, 책임지각은 .622이며 전체 인권감수성에 대한 신뢰도는 .675로 측정되었다.

Table 3. Human Rights Sensibility Items Reliability

Variables	Number	Cronbach's alpha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10	.678
Result Perception Ability	10	.681
Responsibility Perception Ability	10	.622
Total		.675

대학생이 인식하는 인권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D 대학의 교양수업을 듣고 있는 20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인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

인하여 가장 부정하는 문항(-4)을 1점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4)의 경우 9점을 주어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13]. Q요인분석은 주요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했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총 4가지 유형이 생성되었다. 이들 유형의 설명변량은 50.26%이며, 아이겐 값은 각각 6.9552, 1.8839, 1.2126으로 나타났다. 요인항목을 3으로 지정하였지만 총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igen Value and Variance

Contents/Type	I	II	III
CHOSEN EIGENVALUES	6.9552	1.8839	1.2126
TOTAL VARIANCE	.3478	.0942	.0606
CUMULATIVE	.3478	.4420	.5026
SOLUTION VARIANCE	.6919	.1974	.1206
CUMULATIVE	.6919	.8794	1.0000

3. 연구 결과

3.1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Table 5와 같다.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11.88로 높은 수준이다.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지각은 평균 3.96, 결과지각은 평균 3.99, 책임지각은 3.92로 나타났다.

Table 5. Human Right Sensitivity

Variables	Number valid	Minimum	Maximum	Mean	S.D.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322	1.00	5.00	3.96	.560
Result Perception Ability	322	1.00	5.00	3.99	.553
Responsibility Perception Ability	322	1.00	5.00	3.92	.543
Human Right Sensitivity	322	3.00	14.80	11.88	1.526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인권감수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 여성이 평균(4.00)으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학년별에서는 3학년(4.05), 4학년(3.96)학년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3.98)가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평균 4.20으로 가장 높았으며, 봉사교육을 한 학생들이 평균(3.98)로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표시한 학생들이 평균(4.00)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이(3.96)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Human Rights Sensibility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ategories		SD	df	t/F	sig
Gender	Male	3.87(.60)	1	4.559	.034*
	Female	4.00(.44)			
	Total	3.94(.51)			
Year	Freshman	3.92(.53)	3	.851	.467
	Sophomore	4.05(.42)			
	Junior	3.96(.50)			
	Senior	3.98(.43)			
Religion	Total	3.92(.49)	3	.230	.163
	Christianity	3.90(.53)			
	Buddhism	3.96(.50)			
	Catholicism	4.26(.35)			
Majors	Nothing	3.93(.44)	9	1.680	.083
	Total	3.85(.53)			
	Buddhism	4.13(.48)			
	Liberal arts	4.20(.56)			
	Natural	3.86(.62)			
	Law	3.97(.44)			
	Social science	3.94(.46)			
	Business	3.86(.49)			
	Bio Medical	3.95(.50)			
Volunteer Experiences	Engineering	3.98(.52)	1	1.892	.170
	Education	3.89(.46)			
Blood Donation	Arts	3.93(.53)	1	.646	.422
	Total	3.98(.49)			
organ Donation Decision	Yes	4.00(.45)	1	.327	.568
	No	3.95(.51)			
Human Rights Education	Total	3.96(.52)	1	.023	.880
	Yes	3.95(.48)			

**p<.001, *p<.05

3.2 대학생이 인식하는 인권 유형

대학생들의 인권 인식에 대한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1유형은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2유형은 ‘실리추구의 현실형’, 3유형은 ‘사회체제 유지형’, 4유형은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유형1은 P=10이 3.0357, 유형 2는 P=15가 .8191, 유형3은 P=17이 1.4401, 유형4는 P=2가 .8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7. The 4 Types of Perception for Human Rights

Type 1(N=9)		Type 2(N=2)	
P sample	Weighted factor	P sample	Weighted factor
1 1234	2.0213		
3 1236	1.4024		
7 1240	1.0877		
10 1243	3.0357		
12 1245	1.2810	15 1248	.8191
14 1247	1.2514	19 1252	.6008
16 1249	.6960		
18 1251	1.4144		
20 1253	1.8047		

Type 3(N=7)		Type 4(N=2)	
P sample	Weighted factor	P sample	Weighted factor
4 1237	.7110		
6 1239	.8833		
8 1241	.4588	2 1235	.8814
9 1242	.6212	5 1238	.1219
11 1244	.6341		
13 1246	.5727		
17 1250	1.4401		

유형1 :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편적인 사회윤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Q10의 ‘인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z=2.02)’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Q5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z=-2.17)’에서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인자가중치가 높은 P10의 응답 내용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은 이 사회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통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에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10	The issue of human rights is not only my problem but also society.	2.02
4	We must protect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not only in our society but also worldwide.	1.90
1	I think human rights means that people should not infringe or take away the basic rights of others.	1.76
11		1.12
3	I want to fight for human rights issues.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you don't want is to violate your human rights.	1.07
32	I think that only human rights seem to be important without responsibility.	-1.05
21	The human rights issue may cause controversy for a while, but it will soon be forgotten.	-1.06
33	People think that the privileged class doesn't have their human rights.	-1.08
15	If there is a human rights issue, I will consult with an acquaintance rather than a human rights center.	-1.15
13	If I have a human rights issue, I will not do anything avoiding the worse result.	-1.16
12		-1.22
22	If I have a human rights issue, I feel like helpless.	-1.32
5	People should be wary of human beings avoiding human right issues. I have never thought about human rights.	-2.17

Table 9. The Statements of Type 2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34	It is too early to house refugees in our country.	2.14
33	People think that the privileged class doesn't have their human rights.	1.91
10	The issue of human rights is not only my problem but also society.	1.68
1	I think human rights means that people should not infringe or take away the basic rights of others.	1.52
29	It is not right to make religious ceremonies for students at schools established by the religious foundation.	1.15
6	While traveling abroad, I thought about human rights when I experienced discrimination.	1.07
12	If I have a human rights issue, I feel like helpless.	-1.01
15	If there is a human rights issue, I will consult with an acquaintance rather than a human rights center.	-1.15
28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1.21
24	I can bear the brunt of the damage that I suffer from by giving the disabled a certain benefit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employment, tax payment, and college entrance.	-1.29
13	If I have a human rights issue, I will not do anything avoiding the worse result.	-1.38
4	We must protect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not only in our society but also worldwide.	-1.38
30	You can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if you violate your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1.91

유형2 : 실리적 현실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 속에서 인권으로 자신의 실질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생각을 토대로 ‘실리적 현실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Q34의 ‘우리나라에는 난민을 받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z=2.14)’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고, Q30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z=-1.91)’에서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였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5는 ‘부자들은 세금을 무작정 많이 내고 부담비용을 늘리기만 한다면 누가 돈을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겠는가, 같은 사람으로서 약자가 동등한 대우를 외칠 때 강자들 또한 편파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살기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는 것은 사치이다’라는 생각을 표출하여 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유형3 :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체제 유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Q1의 ‘인권은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한다’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고, Q30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와 Q28의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인권이 사회적인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7(1.4401)은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사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형이라는 중한 판결을 받을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인의 생명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의 의견을 표출하여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과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10.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1	I think human rights means that people should not infringe or take away the basic rights of others.	2.51
10	The issue of human rights is not only my problem but also society.	2.12
21	The human rights issue may cause controversy for a while, but it will soon be forgotten.	1.16
25	If a temporary worker works like a full-time job, he or she should be paid and treated the same as a full-time job.	1.11
17	I think that labor is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issue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human survival.	1.02
19	The victims seem not to be protected than attacker.	-1.12
6	While traveling abroad, I thought about human rights when I experienced discrimination.	-1.15
5	I have never thought about human rights.	-1.68
28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1.81
30	You can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if you violate your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1.90

유형4 : 개인권리 보호의 사회계약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려주는 특성에 따라 ‘개인권리 보호의 사회계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Q30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와 Q28의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고, Q22의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경계하여야 한다’와 Q34의 ‘우리나라에는 난민을 받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에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여주어 타인과의 개인적 교류나 타인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P2(.8814)는 ‘강제적으로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난민도 사람이고, 다른 나라들도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통해 기존의 사회체계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적인 사회계약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Table 11. The Statements of Type 4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30	You can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if you violate your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1.95
28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1.72
1	I think human rights means that people should not infringe or take away the basic rights of others.	1.48
2	In our society, the most problematic human rights issue is gapjil(to overuse one's power).	1.35
20	I tend to reflect on what I did when I experience human rights issue.	1.29
3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you don't want is to violate your human rights.	1.05
33	People think that the privileged class doesn't have their human rights.	-1.17
7	I think human rights are violated when I am ignored by my boss during my part-time job.	-1.35
18	I learned that the human rights problem of disabled people is serious by volunteer work.	-1.46
13	If I have a human rights issue, I will not do anything avoiding the worse result.	-1.48
34	It is too early to house refugees in our country. People should be wary of human beings avoiding human right issues.	-1.66
22		-1.72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의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특성이 인권감수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년별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인권감수성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14], 본 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교육의 수준과 발달의 성숙정도에 따라 인권감수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인권감

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봉사, 헌혈, 장기기증 여부 등과 같은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 자체를 받은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다른 기준들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인지적인 학습보다는 체험에 의해 타인의 권리에 대해 민감성을 향상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Jung[15]의 연구에 의하면 인권교육 경험이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일시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인지적 학습의 효과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체험형 입법활동 수업’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6], 인권감수성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인식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1유형은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2유형은 ‘실리추구의 현실형’, 3유형은 ‘사회체제 유지형’, 4유형은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1유형은 인권이라는 원칙적인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모범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만, 추상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적인 인권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접할 가능성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인권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생각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유형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인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켜야 되는 규범을 따르려는 의지가 보이며, 각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 민감성을 보이지만,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인권의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윤리의 측면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3유형은 1유형과 같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고, 2유형처럼 현실적인 사회적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 구조에 대해 불신하며, 인권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

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이며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유형은 2유형 및 3유형과는 달리 사회적 규범보다 개인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강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모든 사람의 측면에서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인권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할 기회가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인식의식은 일종의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어[6], 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학생의 인권의식이나 인권태도에 대한 조사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유형을 파악한다면, 향후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타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개인적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및 인권인식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인식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References

[1] Y. L. Moon, M. H. Moon, Y. J. Guak,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 University of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2.

[2] B. S. Hong, Y. A. AH,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Sensitivity on School Violence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3, pp.307-335, 2012.

[3] Y. J. Cho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endency to Support For Human Rights in Practice : The case of High School in the Kyonggi region", University of Kyung Hee, 2006.

[4] Kohlberg. L.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 Haper & Row. 1981.

[5] Y. S. Lee, "A Path Analysis between right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and Case Advoca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University of Kyonggi, 2016.

[6] H. Park, "Human Rights Sensitivity of Undergraduates in Social Welfare Classes : Focused on Adult Learner in On-line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8, pp191-200, 2013.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3.13.08.191>

[7] Y. J. Kim, K. J. Cho, "A Study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a Human Rights Course on Adult Learners' Human Rights Sensitivity in an on-line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5, No.1, pp.27-53, 2017.

[8] J. J. Kim,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orkers' Perception on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Homes of the Disabled" University of Gongju, 2011.

[9] H. J. Kim, "Analysis about the Perception Gap on the Human Rights Status Quo in Social Worke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4, pp.109-132, 2010.

[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friendly University culture", 2009.

[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 Exposition of Human Rights", 2011.

[12] J. O. Park,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2014.

[13] H. K. Kim, S. J. OH, "The Psychological Typologies among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 Toward the Possibility of New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22, pp.161-177, 2011.

[14] S. E. Kim, "Ethical Valu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Korea Journal of Healthcare Ethics*, Vol.18, No.2, pp.117-128, 2015.

[15] S. Y. Jung,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rofessionals in the Mental Hospital",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23, pp.59-87, 2006.

[16] H. G. Kim, S. Y.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periential Legislative Activity Class upon youth'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47, No.4, pp.37-62, 2015.

심 태 은(Tae Eun Shim)

[정회원]



- 2003년 8월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7년 6월 ~ 현재 : 동국대학교 학생처 역량개발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교수학습, 교육행정

이 송 이(Song Yi Lee)

[정회원]



- 2001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Health&Behavior Studies)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다름마칼리지 강의초빙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에니어그램, 코칭, 아동청소년복지